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세인 신경외과 의원
병원 카칭은 ☎ 063220-6600
전주시 참선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5월 16일 제20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6-9700



27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F조 3차전 대한민국-독일의 경기에서 한국이 2:0으로 승리를 거뒀다.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이 관중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태극전사, 기적 일궜다

2018 러시아월드컵... '세계랭킹 1위' 독일 2:0 꺾어 후반 추가시간 김영권·손흥민 연속골... 16강은 실패

대한민국이 다들던 챔피언 독일을 무너뜨렸다. 16강 진출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아 기적을 일궜다. 신태웅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최종 3차전 독일과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김영권과 손흥민의 연속골로 2: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랭킹 1위 독일을 꺾었지만 조별리그 3경기에서 1승 2패(승점 3, 골득실 0)로 3위에 머물러 두 대회 연속 16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스웨덴이 멕시코를 3:0으로 완파하며 2승 1패(승점 6, +3)로 멕시코(2승 1패, 승점 6, -1)와 승점에서 동률을 이뤘으나 골득실에서 앞서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멕시코는 2위로 남은 한 장을 가져갔다. 승리의 쾌락을 담은 독일은 1승 2패(승점 3, -2)로 골득실에서도 한국에 뒤져 조별리그 최하위로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직전 대회 우승팀이 조별리그에서 고전한다는 '우승국 징크스'를 펼치지 못했다. /김재홍 기자

도민과 대도약 시대 연다

내달 2일 송하진 도지사 취임식
기존 성대한 방식에서 탈피 최대한으로 간소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의견 없이 진행
소망나무 설치 희망종이 배달아 일정기간 전시

제36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취임식이 오는 7월 2일 오후 5시에 전북도청 현관 앞마당(유천시 도청 현관로 비)에서 개최된다. 또한 새롭게 정비된 천년누리관광개척식을 취임식과 연계하여 도민의 휴식, 문화 및 소통의 공간으로 원창새 숲길을 다짐할 계획이다. 이번 취임식 행사는 기존 성대한 취임식에서 탈피하여 최대한 간소하게, 누구나 참석가능하게 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는데, 이는 낮은 자세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소리를 듣고 도민과 함께 민선7기 정책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송하진 도지사의 의지표명이다. 취임식은 도내 가관단계장 등 초창 없이, 도청 홈페이지에서 행사를 간



이를 대할 수 있도록 했고, 소망 나무는 취임식이 끝난 뒤 도청현관에 일정기간 전시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개최할 천년누리관광 열린 행사는 새롭게 정비된 관광이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에 도민의 휴식과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다시 재창하는 의미를 기념하고자 광장명랑 포자석 제작 및 천년 누리수 통수식을 도민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출범을 통해 자랑스러운 전북의 천년 역사를 응시하는 미래로 준비해 나가며, 앞으로는 발로 뛰면서 도민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동종대(2017년 7월 1일) 이후 지역 내 조선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도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및 고도화를 지원하고자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도내 중소 중견기업을 모집 중이다. 군산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들의 대기업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발굴 권성, 2020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가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투입

조선기자재 사업 다각화 생태계 구축

전북도, 도내 관련 중견기업 모집 중... 2020년까지 산동부와 총 30억원 투입

한다. 주관기관은 전북세단군산항우항이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이 각각 주관기관 및 고도화를 지원하고자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도내 중소 중견기업을 모집 중이다. 군산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들의 대기업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발굴 권성, 2020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가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투입

한다. 주관기관은 전북세단군산항우항이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이 각각 주관기관 및 고도화를 지원하고자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도내 중소 중견기업을 모집 중이다. 군산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들의 대기업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발굴 권성, 2020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가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투입

연계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조선기자재 납품업체가 있는 도내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중소 중견기업, 또는 조선해양기자재분야 제품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조선산업의 견실한 내실성장을 위해서는 중소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와 기술고도화가 필수적이다"며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조선기자재업체들의 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선생태계를 육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플랜B', 독서대전 성공개최 위해 우수사례 학습

전주시 스마트 독서 학습 동아리인 '플랜B'가 오는 9월 전주에서 열리는 시민 독서축재인 전주독서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우수사례 학습에 나섰다. 2018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기록과 기억'을 주제로 전주행복마을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독서동아리 '플랜B'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서울 국제도서전 현장 찾아가기 작가와의 만남, 특별별전 관람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독서대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송효철 기자

오제성 플랜B 동아리 대표는 "올해 전주 독서대전이 개최되는데 전라도 전주만의 명확한 방향성 설정을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동아리 회원들부터 독서대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 BUAN-GUN

扶來滿福-부안에 오시면 복 받습니다!

“핫(hot) 뜨거운 여름을 부탁해!! 축복의 땅 부안아”

부안수목장, 고사리수목장, 모듬수목장, 고사리수목장, 고사리수목장